

‘넓게... 투텁게...’ 희망회복자금 지급

정부,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 투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특히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

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종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우선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의 경우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200~4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140~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900~25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매출감소 판단기준을 대폭 확대해 지난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 계획이다.

그 밖에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문사지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

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7일부터 지급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지(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인 법인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17, 18일)은 홈페이지로 운영되므로 사업체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홈페이지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기타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13일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총 20만개 사업체에 4.8조원을 지원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희망회복자금의 핵심이 넓고 투텁고 신속한 지원인 만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함께 green 정기예금 특판
기간 : 2021. 6. 28(수) ~ 2021. 8. 31(화) 연이율 1.40%
최고 연 1.40%
2021. 6. 28(수) ~ 2021. 8. 31(화) 연이율 1.40%
2021. 6. 28(수) ~ 2021. 8. 31(화) 연이율 1.40%

ESC 친환경 상품 ‘인기’

전북은행 ‘함께 Green 정기예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지난 6월 28일부터 판매한 ESG 친환경 상품 ‘함께 Green 정기예금’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인기를 끌고 있다.

전북은행은 이 상품이 한 달여 만에 한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00억원을 추가 증액해 판매한다. 지난 13일 현재 누적 가입금액 1,350억원으로 이달 말까지 잔여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함께 Green 정기예금 특판’은 고객과 전북은행이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보호 참여형 상품으로 종이포장 미발행 고객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3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기간은 1년제와 2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금리는 최대 연 1.40%다. 여기에 시장금리부정기예금 고시금리에 기본 우대금리 연 0.25%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로 가입하거나 종이포장 미발행 시 연 0.20% 마케팅 활용 등의 시연 0.20%로 최대 0.65%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신청은 전북은행 전 영업점을 비롯해 모바일 웹,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NH 스마트팜론’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대한민국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강소농 육성과 청년농업인 지원을 지원하는 중소형 스마트팜 전용상품 ‘NH스마트팜론’을 출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NH스마트팜론은 시설완성분야 중소형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지원을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식물공장 형태의 스마트팜 설치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농업인은 최대 5억 원, 농업법인인 최대 10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신용대출은 3년 이내, 담보대출은 15년 이내이다.

특히 해당 품목 영농경력 보유 및 관련 교육이수 농업인에 대해 최대 1.6%p 우대금리 및 추가 신용대출 한도를 제공하며, NH스마트팜 스텝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성공영농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년 창업농에게는 ‘NH포인트’ 특별적립 혜택을 우대서비스로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하반기 탄소섬유 성형

기본교육 참가자 모집

전북도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그리고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서는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뚝 365’를 통해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탄소섬유 성형 기본 교육을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핸드레이프 공법의 이해 ▲인피넬 공법의 이해 ▲프리트 레그 공법 이론 및 실습 ▲프레스 공법 실습 총 네 가지 공법의 이론 및 실습과정으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모집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뚝뚝365(www.mak365.kr)’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 복합재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국내 과수농가 “새로운 품종 원한다”

사과 ‘후지후브라스’·배 ‘신고’·포도 ‘샤인머스켓’ 등 선호 무병묘 구입의향도 높아... 농식품부, 내년 선호 품종 무병묘 공급

우리나라 과수농가들이 사과는 후지후브라스, 배는 신고, 포도는 샤인머스켓 등 새로운 품종들을 선호하며, 무병묘 구입의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과수농가에서 재배를 희망하는 품종 선호도를 조사하고, 선호 품종 중에서 무병묘 공급 가능 물량도 조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는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을 재배하는 과수 표본농가 1,850농가를 대상으로 과원 품종갱신 계획, 5년 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품종 등을 조사했다.

과수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사과는 후지후브라스, 배는 신고, 포도는 샤인머스켓, 감귤은 유라조생, 복숭아는 신비와 유명백도로 조사됐다.

과종별로 보면 사과는 후지후브라스, 미야미, 미야미, 시나노골드 등의 순서로 높았고, 배는 신고, 신화, 화산, 창조 등의 순이며, 포도는 샤인머스켓, 캠퍼얼리, 거봉, 블루스파이어의 순이고, 감귤은 유라조생, 레드향, 천혜향 순이며 복숭아의 천도계는 신비, 유모계는 유명백도, 천중도백도, 경봉 등의 순이다.

선호하는 품종 조사결과를 보면 과수 농가가 선호하는 새로운 품종들이

많으며, 무병묘 구입의향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번에 조사된 농가 선호 품종들은 식미, 풍미, 숙기 등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이 있는 품종들로, 농식품부는 농가 선호 품종을 중심으로 2022년도에 무병묘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과의 경우 감홍, 홍로, 후지후브라스, 하나후지, 자홍 등 8품종이고, 배는 신화, 신고, 화산, 민풍 등 5품종이며, 포도는 샤인머스켓, 캠퍼얼리, 거봉 등 3품종이고, 감귤은 하례조생, 감평, 한라봉, 천혜향 등 5품종이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품종의 목적이 무병묘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국내 육성품종 및 지역특화품목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협약서
2021. 08. 13 (주)코리아세븐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품종과 지역특화품목,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유통과 판매, 가공 상품 개발 등을 위해 코리아세븐과 지난 1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 육성 품종 활용 편의점 상품 만든다

농진청, 코리아세븐과 협약 체결

세븐일레븐에 농산물 납품 농가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교육 실시

세븐일레븐 개발 전국기획 · 판매

샤인머스켓 활용 에이드 유통 중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 육성품종과 지역특화품목,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유통과 판매, 가공 상품 개발 등을 위해 코리아세븐과 지난 1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기술지원에 나선다. 코리아세븐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세븐일레븐 자체 상품(상표명: 세븐일레븐)을 개발해 전국 1만여 곳 매장에서 기획 판매한다.

코리아세븐은 이번 협약에 앞서 경북 경산의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차린

머스켓 포도를 활용해 과즙혼합음료(에이드·ade) 상품을 개발 유통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 ‘소담미’와 제주특별자치도지역 특화품목인 한라봉을 활용한 기획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븐일레븐 매장도 이동통신 앱을 통해 운영 중인 신선식품 구역 ‘세븐일레븐’에서도 우리 품종 농·특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이철원 국장은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유통 창구를 통해 우리 품종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농산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세븐 상품본부 김영혁 본부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각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 육성 품종 판매 활성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달콤한 ‘순창 동결건조 생딸기칩’ 20% 할인

전북농협, 내일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으로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가격인정을 위해 18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 쇼핑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으로 동결건조 생딸기칩을 판매 실시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에서 생방송 판매하는 동결건조 생딸기칩 제품 촬영은 지난달 22일 개소한 전북농협 온라인지역센터에서 진행하며, 주문 받은 후 포장 상자에 담아 순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익일 택배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결건조 생딸기칩 세트(세트 당 12g 10봉)를 시중가 대비 20% 저렴한 가격인 2만 원에 300개 한정 무료 배송·판매한다. 이 제품은 GAP 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딸기를 영하 40도 급속 동결건조로 과일 수분만 제거한 최첨단 공법으로 영양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식품 첨가물이 전혀 없어 제철딸기의 달콤함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상품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라이브커머스의 장점인 생방송 소통을 통해 제품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에 맞는 지역 농축산물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가의 매출을 증대하고 구매자에게는 질 좋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네팔 공무원 대상 ‘글로벌 연수’

연금제도 강의 · ICT분야 민관협력사례 특강 등 구성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네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글로벌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제도 글로벌 연수는 공적개발원조 정부 부처 제안사업으로 KOICA와 협업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단의 연금제도 노하우 및 경험을 대상 국가에 전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몽골 사회보장직업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올해는

네팔의 재무부, 노동고용사회보장부 등 9개 정부 부처 공무원 28명에게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연금제도 강의, ICT분야 민관협력사례 특강, 네팔의 연금정책모형 개발을 위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이론 강의는 공단 직원 43명이 강사로 참여해 총 10편의 동영상으로 사전 제작했으며, 연수생은 강의를 매일 시청하고 퀴즈를 풀면서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김윤상 기자

특히 연수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 관광지를 소개하는 랜선 전방여행과 네팔 출신 방송인이 출연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과정’을 특강으로 구성했다.

연수생들은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에도 참석해 네팔이 직면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토론과 액션플랜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국민연금 글로벌 연수 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네팔의 연금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의 파트너십 또한 더욱 공고해질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